

김현섭

본회 회원, 서울 영림중 교사

서평: 교실에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해로 반 브루멜른 지음,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역, IVP간행

“교실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이 질문은 열악한 공교육 체제 속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육의 영역에서 증진되기를 소망하는 기독교 교사에 있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 일부 현직 기독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위 미션스쿨이라는 기독교 학교들이 한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기독교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과연 기독교적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가 교육 활동 전반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하게 들릴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학연 교육연구모임을 통해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이 책은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공교육 내에 있는 현직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전에 나온 기독교 교육 관련서적은 주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문제나 기독교 교육 원론류, 내지는 교육 신앙 에세이류였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책들이 이론적 깊이는 있으나 원론적 논의에 그쳐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현실적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교육경험에 치우쳐 이론적 깊이가 없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본 책은 저자의 풍부한 현실 교육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교육 이론적 기틀까지 제시하고 있는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기독교세계관에 토대를 둔 기독교적 교육학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교수-학습 방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브루멜른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가르치는 일과 지식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공립학교 및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적 학교 교육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브루멜른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한다. 즉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심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섬기는 훈련 그리고 공동체를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브루멜른은 이 책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교육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기독교적 교수 학습의 목표로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삶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의 기초, 틀, 의미를 밝히 드러내기
2. 개념, 능력, 창의성 발달을 촉진하기
3.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4.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양식에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격려하기

또한 브루멜른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의 요소로 구조화, 펼쳐 보임, 능력

부여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기독교적 학습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습방식에 따라 직관형, 지적 사고형, 실행형, 창의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면서 학습단계를 배경설정, 전개, 재구성, 초월(발전적 적용)로 나누어 학습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가 제시한 학습모형은 일반적 학습모형인 도입, 전개, 정리(적용)의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각 단계가 담고 있는 기독교적인 교육의 의미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특히 일반 교사들이 흔히 소홀히 여기기 쉬운 도입과 발전적 적용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이러한 그의 학습모형이 유일한 기독교적 학습모형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훌륭한 기독교적 학습모형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수업내용을 억지로 네 가지 틀에 끼어 맞추어 구성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무리일 것이다. 각 교과와 특성에 따라, 각 단원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모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브루멜른은 자신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학습모형 제시 뿐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그리고 기능과목 등 다양한 교과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독교적 교육과정 사례들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가치중립적이라고 믿는 일부 과목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지침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인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브루멜른은 기독교적 교육과정 뿐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한 하드웨어적 측면의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도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는 공동의 목표로 연합되고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화된 사람들의 집단인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학교는 결국 기독교 학습공동체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1) 교사들의 팀을 개발하기 - 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과연구팀 등을 운영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으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2)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원봉사나 재정 후원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의 기독교적 성격을 고양하기 위한 방침 세우기 - 건전한 학교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끝에 교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학교에 대한 애정과 결속력 기르기 - 다양한 학교행사 등을 통해 애교심과 학생 상호간에 결속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5) 학생의 봉사기회 - 교실에서, 학교 전반에 걸쳐서,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양한 봉사기회를 제공한다.
- 6) 학교의 크기 -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선 학교가 작을수록 좋다.
- 7) 학교 기도회, 예배, 성경공부 - 교과 활동 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조건들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반성하는 몇 가지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기독교학교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상의 특징은 각 장마다 토론 주제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이용하여 그룹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기독교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데 풍부한 토의 주제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학연 교육연구모임에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국적 상황에서 토의해 볼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첨가해서 더욱 풍부한 논의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책 뒷부분에는 기학연 교육연구모임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본 기

독교적 학교교육이라는 장을 첨가시킴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육현실과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 책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가 캐나다 사립 기독교학교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의 영향 속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책 내용 속에서 서양 문화적 특성과 요소가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앞으로 이 책을 계기로 우리 교육 현실에 토대를 둔 기독교적 교육과정 연구서가 우리 손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사가 연합해서 연구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저자인 브루멜른이 서문에서 권한대로 공립학교나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사, 교육에 관심있는 기독교 대학생,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많은 이해와 노력을 새롭게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